

『인권연구』 8(2): 99-13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8(2): 99-131.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5.8.2.99>

[일반논문]

## 성인기 이행에 따른 인권운동 활동의 지속과 제약 요인:

청소년 인권운동 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나 승 업\*

---

한글초록

---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변동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청소년 활동가들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의 지속과 제약 요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논란 등 한국 사회의 부정의와 폭력의 목도는 청소년 인권운동 참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청소년들은 연령주의는 물론 청소년 내부의 젠더, 지역, 노동자성 등의 차이를 살피며 성평등, 환경, 노동 등 인권운동의 범위와 활동의 연대 범위를 넓혀 나갔다. 하지만 대학 진학으로 인한 지역 이동, 대학 내의 탈정치화, 청소년 당사자성의 약화, 경제적 독립에 따른 생계 어려움은 활동 지속에 어려움을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인권운동의 경험이 이후 활동 지속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인기 이행이 가져온 제약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주제어: 청소년, 인권운동, 활동가, 성인기 이행, 당사자

---

---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목 차 —

- I. 서론
- II. 인권 의제와 운동 영역의 확장 및 어려움
- III. 활동가의 성인기 이행과 인권운동의 지속, 확장 그리고 제약
- IV. 결론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sup>1)</sup>은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 보호가 필요한 존재 등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다. 학생으로서 혹은 노동자로서의 청소년은 군사 독재 및 억압적 산업자본주의에 저항하며 한국 사회의 핵심적 변혁운동에 늘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구해근, 2022). 또한 가족 단위의 생존과 정치 경제가 심화하며 청소년이 학교와 가족의 담합적 협력을 통한 통제(장경섭, 2006)의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2008년 광우병 시위, 2016-7년 및 2024-5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도 청소년들은 함께 했다. 지금도 청소년 인권 증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음, 청소년기후행동 등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인권운동은 청소년에 대한 폭력·차별·억압을 없애기 위한 사회운동(난다·공현·피아, 2021: 11), 청소년을 사람이 아니라 대상

---

1) 청소년 연령은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표준적 학령기를 고려해 19세 이하로 청소년의 기준을 정의하고자 한다.

으로만 받아들이는 사회통념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련의 활동(수수, 2015: 228), 학생과 인간이라는 단어 사이의 괴리감을 줄여나가는 담론을 만든다는 것(혜원, 2014: 34)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청소년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입시 체제, 나이주의나 보호주의(민서연, 2023: 35)에 대한 문제 제기 중심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인권의 주체로서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은 학생이라는 역할 혹은 특정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지역, 성적체성, 세대 등 다양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운동(공현, 2022; 하지훈, 2022), 페미니즘(남미자, 2019; 이하영, 2021) 등 청소년만의 의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인권운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다.

청소년 인권운동이 중등교육 과정에 놓인 학생 혹은 청소년기의 특정 의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과 접합되고 있다면 청소년기 인권운동의 참여가 이후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어떻게 지속, 확장되고 있는지 역시 주요하게 설명되어야 할 지점이다. 세월호, 탄핵, 코로나, 페미니즘 등 한국 사회의 격변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주체들이 이후 한국의 인권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도해 나갈지는 물론 운동 지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역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5년 세월호 참사를, 중학교에 입학하던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목도하며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이던 2019년 앞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한 정당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표하고자 제안해 온 비례대표제 관련 선거법 개정이 논의되자 해당 정당에 가입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당 정당에서 활동하며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병행했다. 이후 지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단위로 청소년들을 조직화하고, 학생으로서는 학생자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도 나섰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준비를 앞두고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입학한 대학과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으나 입학한 대학에서는 운동

조직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해당 지역 정당 조직이 이전과 전혀 달랐기에 대학 내에서 학과 친구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운동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인권운동 참여를 함께 했던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활동을 중단한 이들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의제 불문, 청소년 주체가 행한 인권운동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인권운동 참여와 활동의 성인지 이행과 함께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지속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미시적 차원에서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활동가 소진에 주목해 왔다. 과도한 업무, 만성적 재정난, 인력 부족 등 조직 차원의 문제는 활동가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소진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타인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겪는 대리 외상이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책임감도 설명되어 왔다(서정훈, 2018; 임미진·성승연, 2024). 소수에 그치나 청소년 활동가에 관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2006년부터 2016년 사이<sup>2)</sup> 운동을 시작한 활동가 10명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한 한 연구는, 활동가로서 정체화 어려움, 운동의 열악한 상황, 반복되는 실패, 동료의 부족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 과중한 업무량과 생계 문제, 삶의 불안과 차별, 사회 안전망 부재, 사회적 이해 부족을 제약 요인으로 제시했다(난다·공현·피아, 2021). 두 명의 청소년 인권 활동가의 생애사를 다룬 또 다른 연구는 10대 청소년기는 물론 이후 30대까지의 활동 전반을 다루면서 그들이 20대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사회·경제적 불안정, 심리적 소진과 내상 등을 운동 지속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조지혜, 2023).

다만 위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활동가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2) 해당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에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한 이들을 청소년 인권운동 2세대라 정의하고 있고(난다·피아·공현, 2021: 14), 주로 2세대 시점에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의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난다·피아·공현, 2021: 23).

운동을 시작한 이들로, 이후 활동을 시작한 이들의 경험과 청소년 인권운동의 확장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2017년 이후 한국 사회는 페미니즘 및 기후 정의 등 다양한 인권 의제가 부상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 역시 변화했으며, 무엇보다도 디지털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혐오의 확산과 동시에 사회운동의 방식 역시 변화했다. 이처럼 인권운동이 놓여 있는 정치적 지형에 대한 진단 속에서 청소년 인권 혹은 인권운동의 상황을 설명하는 연구들 역시 개선되어왔다. 2015년 전후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에 대항한 여성들의 집합적 행동은 다음 해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해 사건으로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았고(김영선, 2022: 77), 2016년-17년 촛불 집회에서 페미니스트 존을 운영하고, 2017-18년 낙태죄 폐지 운동과 미투 운동, 2018년 혜화역 시위(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전개 과정에서 10-30대 여성들이 주된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유현미, 2022: 6). 스쿨미투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이하영, 2021).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인권운동에의 참여에 우호적으로 작동한 것만은 아니었다.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학교 공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남미자 외 3인, 2022). 또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페미니즘이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했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 활발할수록 오히려 남학생의 반발이 강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진단됐다(남미자 외 3인, 2023). 2017년 이후 학교 공간 내 차별과 혐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혐오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외모, 이주, 장애, 학업 능력 등으로 다양했다(한희정, 2021). 위와 같은 연구들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 인권운동이 전개되는 공간 중 하나인 학교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능력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다만 학교 밖에서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청소년들의 경험, 학교 중에서도 인문계 혹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유형이나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설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청소년 인권운동에 우호적인 조건들이 창출되거나 경험들이 집합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9년 9월 21일 전국 곳곳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명칭의 집회가 열렸고, 한국 최초의 대중적 기후 운동이 등장했다(정록, 2023: 273). 2010년 중반 이후 청년 세대의 기후 운동은 기후 위기를 미래 세대의 권리와 정의에 관한 문제로 쟁점화하며 대중적 기후 운동을 점화시키고 인권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김현우, 2022; 김민정·이상준, 2023). 또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이후인 2017년 9월에 출범한 청소년촛불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학생 인권법 제정,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의제를 전면화해 운동을 시작했다(김운송, 2022). 2019년 12월 27일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선거법 개정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14일에 시행됐다.

위와 같이 2017년 이후 인권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지형을 고려해 청소년 인권운동의 활동 참여가 청소년기 이후 어떻게 지속 혹은 제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청소년 인권운동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됐는지, 활동가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인권운동 참여 계기와 활동의 확장 방식(2장),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활동의 지속과 단절 요인(3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기에 인권운동 참여를 시작한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활동의 지속 혹은 제약 요인을 이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인권운동을 시작해 현재는 성인이 된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비수도권), 학력(탈학교 및 대학 미진학), 성정체성 및 성별 그리고 현재 활동을 중단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다양하게 포함했다.

연구자의 청소년 인권운동 참여 경험과 현재의 위치성은 연구참여 자 모집과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탈학교 청소년, 퀴어 청소년, 비수도권 청소년 등 연구자의 청소년기 인권운동 과정에서 만나왔던 이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권 활동가의 다양한 정체성과 인권 의제를 포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 시민단체 등 연구자의 활동과 접점이 없었던 활동가들의 경험은 누락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1~6>의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6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2000년~2005년생으로 현재 20~25세이다.

6명 중 여성은 2명, 남성 4명으로 인권 의제에 대한 지지나 시위 참여를 넘어 운동의 지속성을 위한 조직적 대응으로서 활동에 처음 참여한 시기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걸쳐 있었다. 탈학교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를 포함해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이들은 5명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검정고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활동가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은 4명이었고 2명은 중단된 상태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사례	출생	성별	지역	학력	활동 개시 시기	운동 내용	면접 일자 (2005년)
1	2004	남	수도권	대학 재학 (중졸 후 검정고시)	2019 (고1)	청소년 참정권 운동 탈학교 청소년 인권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산업 재해 대응	04.27. 05.26.
2	2000	남	비수도권	대학 재학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	2014 (중2)	박근혜 탄핵 청소년 운동 청소년 참정권 운동 지역 환경 운동 기후 위기 대응에서의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권익 보호	04.30.
3	2005	남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퇴 후 검정고시)	2021 (고1)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학내 인권운동(혐오 발언 반대 캠페인)	05.08.
4	2002	여	비수도권	대학 재학	2018 (고1)	청소년 참정권 운동 기후 정의의 행진 대학생 참가단 조직	05.07.
5	2003	여	수도권	대학 재학	2018 (중3)	학생 인권운동(정치 참여 금지 학칙 개정)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산업 재해 대응	05.22.
6	2002	남	비수도권	대학 재학	2016 (중2)	지역 난개발 반대 청소년 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4.3. 기억 운동	05.28.

연구자는 2025년 4월부터 5월 사이 약 1개월간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은 모두 연구참여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들의 자취방, 거주지 주변 카페 등을 찾아가 대면으로 진행됐다. 면접은 회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심층 면접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사용했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면담상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형식으로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후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끄는 면담이다(김영천, 2016: 297). 반구조화된 면접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면담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면담 과정을 모두 녹음했다. 면접에 사용된 반구조화 면담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했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의 조직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또래 친구들과 양육자 또는 학교 교사 등의 반응은 어땠는지, 지금 인권운동에 관심을 두거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이다.

연구참여자와 면접을 진행한 이후 음성 자료에 대한 전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 내용 중 위 면담 가이드에 따른 이야기와 배경의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해 활동의 지속, 제약 요인에 대해 귀납적 추론의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했다(김영천, 2016: 495).

## II. 인권 의제와 운동 영역의 확장 및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인권 의제는 다양했다. 인권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직접 참여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은 특별한 계기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는 학생 혹은 청소년 당사자 의제로부

터 인권운동에 관심이 확장되기보다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부터 지켜본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탄핵 등 언론과 책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통해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리다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 1. 학교와 또래 청소년의 성차별 문화

청소년 인권운동 지속 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가 대부분 청소년으로서 겪는 폭력과 차별을 직면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난다·공현·피아, 2021: 37). 연구참여자들에게 그 주된 동인은 성차별적인 또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사례3은 유년기부터 남자 같지 않다거나 왜 공놀이 대신 화장을 좋아하냐는 식의 말들을 들어왔다. 학교의 또래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 사례3은 “너 게이야? 여자야?” “OOO 트랜스젠더인가요.” “왜 이렇게 남자 같지 않냐.” 등의 조롱과 비난을 들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성애 남성중심적인 남성 또래 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남궁연·김현주, 2021: 12; 이승엽·조행하, 2016: 55-57). 선행연구가 지적하듯 그런 말을 듣는 또래 구성원은 이러한 집단적 배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자신도 언제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인해 이를 회피하고자 여기에 동참하기도 한다(유아름, 2025: 87).

사례3은 차별 경험의 누적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리게 되었다. 이는 성평등은 물론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됐다.

“사회에서 말하는 남성성을 가지지 못하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이라든가 ...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성평등’ 의제에 관심이 있었고 ... 제가 느꼈던 차별이나 아니면 그런 불평등 같은 거를 뭔가 목소리를 내보자, 한번 배워 보자는 생각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 (중략)

제 안에서 그래서 뭔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벌어지면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3)

사례3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21년, 학내에서 인권 동아리에 가입해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발화를 보여주고자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영상에는 성차별, 연령차별 학교 공간 안팎에서 벌어질 법한 혐오 발화 등을 담았는데, 이는 성차별을 넘어서 다양한 차별 전반으로 문제의식이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직후로는 앰네스티에서 진행하는 성소수자 집회나 청소년 인권운동연대의 시위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모임과도 연을 맺게 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 인권운동의 참여 계기 혹은 배경으로서 성차별적인 또래 문화의 강력함은 다른 연구참여자 역시 지적했다. 사례4는 페미니즘 리부트가 한창 일어날 때 SNS에 페미니즘 관련 글을 공유했다가 또래 남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 표현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듣지 않기 위해 쓰는 표현인 “말문 막혔네”라는 조롱의 댓글 테러를 받기도 했다. 사례4는 이후 길을 가다 남학생이 무리 지어 있으면 무섭게 느껴지거나,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괴롭힘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졌는데 여학생들도 사례4를 보며 “슈퍼스타더라, 너”라며 이죽거렸다.

“페이스북에 페미니즘 관련된 글을 공유했던 적이 있는데 ... 한 명의 남학생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 페미니스트 뭐 이런 댓글도 달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 다니까 그 학교에 있는 남자 애들이 우르르 댓글을 다는거죠. 뭐 막 페미였네. 뭐 어쨌고 이러면서. ...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당한거죠.” (사례4)

## 2. 한국 사회의 변동과 활동 범위의 확장

사례3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차별의 경험보다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증대한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 청소년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로 변모했다. 광우병 집회,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등 광장의 정치는 이들이 사회운동과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 10살인가 9살인가 그 촛불 집회를 우연히 본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 광우병 FTA를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기 힘들잖아요. … 어 저게 뭐지 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뭐 시사 사회나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느꼈고 … 세월호 참사가 매우 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 교과서 사태, 박근혜 때 그렇게 하면서 인권 운동에 관심이 생겼고 …” (사례2)

“2016~17년 박근혜 탄핵 정국이 큰 대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낸 사안이거든요. 박근혜 정권 탄핵을 이끌었던 국정 교과서 관련된 것이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고, … (정치적) 관심을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인권운동의장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보니까 사회운동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사례5)

특히 사례2와 사례5는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학생으로서 더욱 문제적으로 다가왔다. 이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선거권은 없지만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사례2는 세월호 추모 운동을 조직했고, 이후 국정 교과서 반대 서명을 학내에서 받아내는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생 인권 동아리를 만들

어 학내 인권에 대한 운동을 이어 나가려 했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를 계기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촛불 집회를 처음으로 열고 청소년 단체를 조직했다. 이때 대중화된 디지털 매체는 인권운동의 확장에도 기여했다.

“페이스북이랑 카카오토키 그런데서 OO 중학교 대신 전 헤드됩니다. 거기에다 올린거예요. 촛불 집회 오라고.” (사례2)

사례2는 촛불 집회 참여자를 모집할 때 “페이스북이랑 카카오토키”라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했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조직한 단체에 가입시키고자 노력했다. 이후 해당 단체를 전국으로 확장해 학생 인권운동과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진행했다. 2017년 이후 청소년의 적극적 요구와 행동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의제로서 부상하기 시작했고(공현, 2018: 230), 사례2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청소년 참정권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사례2는 학생 인권운동과 청소년 참정권 운동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소 추가 증설이나 인조 잔디 환경 문제 등, 환경 운동에도 참여하게 됐다.

### 3. 정당 정치를 통한 청소년 인권 의제 발굴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정치에 관한 관심과 다양한 인권 의제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참여로 확장되는 과정에는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청소년들과의 만남, 예컨대 SNS 혹은 청소년 모임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 역시 컸다. 특히 2017년 이후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의 장벽이 낮아지며 정당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의 모습이 늘어났다는 점(난다·공현·피아, 2021: 21)에서 정당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사례1 역시 사례2와 사례5처럼 평소 사회 현상에 관심을 지니고 있

었고, 박근혜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인권에 관한 관심이 구체화했다. 사례1은 광장의 분위기를 이후 선거까지 잘 이끌고 간 정치인과 해당 정당에 관심이 생겼다. 해당 정당이 사회적 소수자, 노동 인권 등 타 정당과 달리 급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닮아 있다고 느껴져 2018년, 15세가 되던 해에 해당 정당에 입당해 운동 참여를 지속했다. 초기에는 구체적 사업과 운동 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직에 들어갔던 것이라기보다 정당 행사에 참석하고 공부하는데 집중됐다. 그러다 2019년 지역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인권에 관한 관심이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그래서 검정고시, 탈학교 청소년 차별 등 탈학교와 관련된 의제로 활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사망이 연이어 보도되자 그들의 노동자성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정책 의제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정당을 매개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노동권 등 한국 사회 청소년의 지위를 중심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이 3년에 한 번꼴로 사망 사고가 터졌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노동자로서 인정 해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 특성화고 현장과 현장 실습 현장의 괴리들에 관한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간담회를 갖고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도 했습니다.” (사례1)

사례4는 중학교 때 책을 읽으며 자신이 알지 못하던 사회적 존재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인권에 관심을 가져왔다.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모순적으로 다가왔고, 참정권 확대는 너무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 속에 청소년 참정권 의제로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 의제에 관심을 보여온 다양한 단체들 가운데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정당에 가입했다. 청소년 참정권 의제로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정당 내의 활동은 그 의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례4는 지역에서 여자 중

고등학교의 교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순결·정조 등의 성적 이중규범이 포함된 곳이 40%에 달했고 사례4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다.

“우선 지역의 모든 여자 학교들의 교훈을 전수 조사했어요. 그래서 교훈을 전수 조사했는데 그때 30%인가 40%인가 순결, 정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너무 구시대 적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한 걸 이제 정리해서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 열고 이렇게 해서” (사례4)

사례4는 정당에서 청소년이라는 구체적 위치와 다양성에 주목하며 청소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쟁점과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사례5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국정 교과서 논란을 알게 됐다. 인권운동과 정치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서 국정 교과서 논란을 활동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으로 이야기했다. 이후 인권운동에 있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한 정당의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 특정적이라 여겨지는 인권 의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했다. 사례5는 지역 청소년위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칙을 전수 조사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고, 과반이 넘는 학교가 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학칙 담당 교사와 문제를 논의해 학칙 개정을 이끌었다. 또한 정당에서 운동하며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문제를 접했고, 해당 문제가 착취적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형성했다.

“또한 당내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장 실습도 약간 처우 개선이 필요한 의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례5)

#### 4. 청소년이라는 정체성 이해와 전략적 활용

소수자 차별이나 이를 용인하는 정치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의식을 지니고 있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던 청소년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생각에 전제된 연령주의를 성찰하고 그 모순을 보여주기 위해 활동가로서 책임을 인수했고, 그것이 운동 지속의 힘이 되기도 했다.

사례6은 제주 강정 평화 대행진에 참여하면서 인권운동에 관심이 생겼다. 강정 해군기지에서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 제2공항 등 더 다양한 환경 문제로 관심이 확장됐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례6은 2019년에 청소년 환경단체를 조직했다.

“우리도 제주도라는 청소년 환경단체를 만들었고 ... 제2공항, 비자림로 같은 제주의 난개발 문제들을 어른들에게만 묻지 말고 우리에게도 물으라고 하면서” (사례6)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어른들”에게만 묻지 말자는 사례6의 구호는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당위적 선언 혹은 일차적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넘어, 과연 청소년이 연령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역량이 있는지를 통해 인권운동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었다. 사례6은 지역 난개발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어른들에게만 묻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물으라고 했고, 여기에 환경 문제 또는 인권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모여들면서 단체가 조직될 수 있었다. 시험지 찢기 퍼포먼스, 결석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을 지속하는 과정은 청소년 스스로가 가졌던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격과 그 기준을 실험의 무대 위로 올리는 것이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직접 조직을 하고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을 진행했다는 거 저에게는 되게 활동하면

서 가장 큰 변환점이었어요. 저는 그전까지도 실은 의문이 있었어요. 스스로도 청소년들이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활동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보았고 같이 조직하고 활동하는 걸 보면서 청소년도 하나의 주체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맞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례6)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정치적 지위를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2는 청소년 단체를 만들고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과 집단으로 한 정당에 가입했다. 정당에서 노동과 환경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싶었으나 당내에 청소년 단위가 아예 없었고 청소년 의제를 다룰 사람이 없던 상황 속에서 사례2는 청소년 의제를 다루는 역할을 인수했다. 이때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은 정당 내부에서 자신이 정치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사례2의 정치적 입지는 당시 당내 청소년 단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청소년 단체에서 만들었던 기반을 당으로 끌고 와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 우리 나가면 청소년 운동 누가 할 건데?” (사례2)

### III. 활동가의 성인기 이행과 인권운동의 지속, 확장 그리고 제약

2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활동가들은 청소년이라는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버리고, 확장해 왔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예컨대 사례3은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는데 굳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느껴져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이후 사례3은 미용 관련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일을 시작하니 시간은 없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인권 의제를 바라볼 때의 피로감은

더욱 깊어졌다.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과 기대는 있었으나 현재는 인권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사례2 역시 청소년 시기에 함께 운동한 이들이 대학 진학 후 “생활인”으로 전환한 사례를 소개하며 “기성세대에 발탁이 돼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겪다가 현실을 인식해 번아웃이 왔다고 얘기했다.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인권운동을 하면서 겪는 현실과의 괴리 등(난다·공현·피아, 2021; 서정훈, 2018; 임미진·성승연, 2024; 조지혜, 2023)은 청소년 인권운동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 지속의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성인기 이행에 따른 변화와 영향 요인은 아래와 같았다.

## 1. 진학 및 지역 이동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데 함께 할 사람들과 조직이 사라지는 것이 성인기 이행으로 인한 활동 제약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사례1은 대학 진학과 함께 청소년기 주요 활동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겼다. 청소년기에는 인권운동의 활동을 지역 기반으로 해 왔기에 새로운 지역에서 기존과 유사한 활동 기반을 찾거나 새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제가 인천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라 대학교도 인천이고 자취방도 인천인데 경기도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인천에 어떤 연고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게 커요.” (사례1)

활동가들이 대학 진학으로 인해 기존의 활동 지역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활동하던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지역 지부나 다른 네트워크는 새로운 공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연속성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지역 정당이나 조직에 다시 안착하기는 쉽

지 않다. 지역별로 구성된 정치적 관계망, 활동가들의 세대적·정치적 분위기, 내부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기존 활동 기반과는 다른, 낯센과 이질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당·시민단체 등을 직접 알아보고 접촉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공간을 찾는 일은 상당한 심리적·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 거절의 경험 등은 활동 의욕을 저하할 수 있고 기존 활동했던 조직과 새로운 조직 사이의 문화적 차이 또는 관계적 장벽은 새로운 공동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대학 진학을 겪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특성이라기보다 인권운동의 활동 기반이 지역별로 다르게 구성된 현실을 반영한다. 예컨대 사례1이 지역 이동 후 해당 지역 정당에서 겪은 소외감은 그저 사람들이 낯설어서가 아니었다. 그 지역 조직에는 사례1이 과거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시해 온 의제를 이행할 기반이나 문제의식의 공유가 약했기 때문이다.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인권 의제에 대한 체감과 문제의식,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나 역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사례1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2023년 이후 정당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 진학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사례2의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사례2는 경남에서 태어났고 경남에서 활동하다가 경남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례2는 같은 지역 내에서 기반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었고, 정당이든 시민 사회에서든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해 주었기에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서술한다. 사례2는 자신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행운”이라 표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야기되는 어려움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했다.

“저는 경남에서 태어났고 경남에서 활동하다가 경남에 있는 대학에 와서 기반이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당이든 시민 사회에서든 기회를 계속 줬고. 그래서 저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선

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강원도로 갔다? 뭘 할 수가 없는거죠.” (사례2)

사례2는 이러한 조직과 공간의 연속성 속에서 2019년 기후 위기 운동 대중화(정록, 2023: 273)를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며, 청소년기부터 문제의식을 버려온 지역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운동을 지속·확장했다. 현재 사례2는 지역에서 환경단체 이사와 정책위 간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정당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본부장을 맡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2. 대학의 탈정치화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에게 활동 지속을 위한 지역 관계망의 사라짐으로 경험되고 있다고 할 때, 대학은 거의 유일한 활동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을 통한 인권운동 지속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동체를 통한 개입, 숙의,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들이 사법, 기술 관료, 시장, 형식적 절차, 심지어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탈정치화라 할 때(Hay, 2007: 79-80), 사회운동의 거점이기도 했던 대학은 시장 논리를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 운영의 성과주의로 인해 탈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정치화는 단순히 대학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화 혹은 우경화되고 있다는 결과적 측면이 아니라 협의와 숙의, 토론과 경합 등이 위축되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학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조차 개인의 이익 침해를 문제화하고 이익 충돌의 상황에서는 사법적 기준을 우선 들이대는 탈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sup>3)</sup>

---

3) 예시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청소노동자 집회는 대학 강의가 이뤄지는 건물들 사이에서

사례1은 대학 진학으로 활동 지역이 변화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대학을 통한 운동의 지속을 꿈꿨다. 성인이 되었기에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 줄 기대했지만, 대학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례1에게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에만 맞춰서 돌아가는 비인권적 행위, 대표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물리적 규율과 억압의 공간이었고 이것에 대한 거부감은 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한 기대를 낳았다. 그렇게 “학생 사회”가 있을 줄 기대했지만, 입학 직후 목도한 것은 학내 쿼어 동아리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을 함께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생활도서관”<sup>4)</sup>도 사라졌다. 사례1이 목도한 대학은 이제 진학이 아닌 취업을 위한 또 다른 경쟁의 공간, 그 경쟁을 독려하는 곳이었다(권영우, 2020: 2).

“그 고등학교라는 공간이 갖는 물성과 그 안에 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불만이 컸었고,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대한 환상이 좀 더 컸어요. 왜냐하면 보다 자유롭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한국 사회가 그렇듯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례1)

사례5 역시 “대학의 탈정치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며 대학 구성원 전체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외로움을 호소했다. 대학 진학 이후 2년 동안 외로움의 감정을 많이 느꼈다며 운동을 하더라도 기

---

진행되었는데 재학생이 청소노동자들을 업무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고, 집회의 소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등록금, 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미래에 우려되는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638만 6천여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준형, 2024: 137).

- 4) 생활도서관은 정부의 금서 조치에 저항하는 시민 운동의 문제의식 속 정부의 검열이나 자본의 논리가 자리 잡은 제도권 도서관과 단절을 모색하는 한편, 학생운동 내의 생활 문화 운동과 결합해 학생회 활동의 전초 기지로서 탄생한 도서관을 일컫는다(강석남, 2024a: 240).

껏해야 5명 정도의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모든 의제를 다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한다. 정치적 무관심뿐 아니라 정치 혐오적인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늘었다고 평가하며, 한국 대학 사회 안에서 운동이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한다.

사례2는 고등학교는 입시 경쟁, 대학교는 취업 경쟁 등 경쟁이 키워드가 되고 같은 한계가 주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례1과 유사하게 대학도 각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이 이행은 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과 공부, 진로 탐색을 해야 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이런 조건 속에서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 준비·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탈주자가 되며 불안을 느끼기 쉽다(난다·공현·피아, 2021: 42).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중고등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 경향은 사회 전체의 정치, 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채 가족 혹은 개인 단위의 생존을 요구하는 가족, 교육, 경제 체제가 20대를 ‘유사 청소년기’의 연장으로 만들어 낸 결과다(장경섭, 2006). 전국 대학 언론도 많이 소멸되거나 축소됐고(강석남, 2023: 205),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가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비정치화 되기도 했다(강석남, 2024b: 285). 학내 학생들이 정치적인 것에 반발심을 가지는 조건 속에서 인권운동의 공간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적이 되지 않은 측면, 즉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는 부분도 발생했다(강석남, 2024a: 257).

그럼에도 대학 공간에서 활동을 확장한 참가자도 있었다. 사례6은 “대학의 운동판은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탈정치화에 반대하며 인권운동을 이어갔다. 사례6은 소위 글로벌 대학 30이라는 교육부 정책으로 “인기 학과”만 남고 “비인기 학과”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직접 단과대 학생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글로벌 대학 30이라는 정책은 대학 또는 대학생 공동체를 통한 개입,

속의,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들임에도 대학과 학생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과대 회장들 뭐해? 총학생회 뭐해? 입장문 하나 없어요. 그다음 행동이 없는 거예요.” (사례6)

이후 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며 대학 내에서 운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사례6의 활동은 어려움에 놓였다. 대학의 탈정치화는 인권 의제가 학내 인권센터를 통한 사법 절차 혹은 본부의 행정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결 중심의 절차적 형식을 절대시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김미현, 2020). 사례6은 여대 폐지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학생회 단위에서 제출했다가 철회해야 했던 상황을 겪었다. 사례6은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 본부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너네도 학생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의견을 냈잖아”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이때 요구된 절차적 정당성이란 모든 학생의 의견을 조회해 시위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였다. 지지 혹은 반대라는 이분법적 결정을 넘어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인지는 제시되지 않았고, 비난을 통해 학생회의 대응을 무력화하는데 집중됐다.

사례6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야죠”라고 말하며 인권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운동을 하다가 겪은 다양한 어려움으로 “무력감”을 겪기도 했으나 어려움을 이겨내며 인권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활동으로 인한 성취감이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동력은 제도권 내의 변화와 운동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이끌었던 경험으로 생긴 정치적 효능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쪽짜리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제도권에서의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걸 보면서 삶의 원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사례6)

### 3. 당사자에 관한 고민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당사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청소년기에 접하고 또한 청소년이라는 위치에서 문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현재 청소년기에 놓인 당사자들이 그 운동을 이끄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예컨대 사례1과 사례3, 사례4는 자신이 청소년기에 가졌던 문제의식이 열어졌고, 청소년 시기에는 문제였다고 생각한 것이 성인이 된 이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학생이라는 역할 혹은 19세 이하의 연령으로서 의제를 다뤘던 운동의 동력으로서 작동하기도 했던 당사자성이 사라진 상황을 언급했다.

“내가 청소년일 때 너무나 불편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른이 되니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담배도 못 사고, 술도 못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10시가 되면 피시방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이런 건 좀 개선돼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사실 법적 성인이 되니까 제약이 사라지잖아요. ... 문제의식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운동의 동력을 제 스스로 많이 잃었죠.” (사례4)

이것은 비단 연구참여자들에 국한된 반응은 아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한 한 연구 역시 활동가 대부분이 청소년으로서 겪은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반감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청소년이 아니게 되면서 초기의 동기가 희미해진다는 점을 짚고 있다(난다·공현·피아, 2021:61). 청소년 인권운동이 청소년기만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그와 맞물린 젠더, 노동,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경험되는 고유한 방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때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경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연대하는 것에

거리를 두는 것은 당사자만이 그 경험에 대한 인식론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당사자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이들은 공감할 수 없는 존재로서 배제될 위험도 크다(마리, 2016).

이와 관련해 사례1은 청소년 인권운동이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인권 의제와 맞물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청소년이 아닌 이들이 청소년의 인권 의제와 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 자신의 청소년기 관점을 절대화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례1은 청소년 인권의 상황과 맥락 역시 끝없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이 경험하고 해왔던 운동 방식을 고수하는 관성과 타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신도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며 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도 했다. 사례1은 당사자성이 희미해지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 의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역, 학생, 청년 등 관심사가 다양해졌으며, 정체성 정치의 언어를 넘어 이와 직결된 다른 인권 의제에 대한 참여를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사례5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며 청소년 운동이 노동, 젠더 이슈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인권의 상호교차성을 내면화했다.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라는 구체적인 접점을 통해 가능했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사례5는 대학에서 “금속노조와 연대하는 대자보, 윤석열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거부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운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운동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노동 현장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현재는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서울 상경 투쟁과 서울 농성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5의 이러한 운동의 확장은 자신의 위치를 고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양한 위치를 오가며 연대의 폭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의

미한다. 이러한 사례5의 운동적 확장이란 단순히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에 선 주체들을 연결하고 외연을 실질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횡단을 의미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중반 이후 인권운동을 시작한 청소년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 인권운동이 청소년기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성인이 이행 과정을 거치며 나타나는 확장 또는 제약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적 경험은 단일하지 않지만, 이들이 인권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문제의식은 일정 부분 공통점을 지녔다. 청소년들의 성소수자 혐오와 성차별, 국정 교과서 논란,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 지역의 난개발 문제 등 동시대 한국 사회를 관통한 부정의와 폭력이 인권운동의 활동가로서 나서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2017년 이후로 부상한 성차별적 또래 문화의 확산, 디지털 문화의 보편화,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확산 등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폭 넓은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인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연령주의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고, 청소년이 당면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다양한 인권 의제로 확장됐다. 이는 청소년 인권운동이 나이 또는 학생이라는 특정 의제에 한정되지 않고 성평등, 환경, 노동, 민주주의 등 다양한 영역과 교차하며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 즉, 청소년 인권운동은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청소년이라는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이었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 이행하는 생애 시점의 변화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인권운동 지속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운동의 조직적 기반이라 할 정당의 지역 간 편차가 컸기에 대학 진학에 따른 지역 이동은 활동의 어려움을 야기했고, 대학의 탈정치화는 학내 인권

운동 기반을 약화시키며 함께할 동료 활동가의 부재를 낳았다.

그럼에도 청소년기 인권운동의 경험과 문제의식, 정치적 효능감은 성인기 이후에 직면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기후 위기 운동, 대학 인권 운동, 노동 운동 등을 지속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즉, 청소년 인권운동의 경험은 그저 특정 시기의 주변적 운동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권운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주체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제약 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정당 등 운동단체에서는 지역 간 인권 의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의 격차를 보이는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이동 시 활동가들에게 그 조직이 새로운 활동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조직 내 지역 및 지부 간 소통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활동가들의 인권운동 동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인권운동 내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운동 동력이 사라짐을 조직에 호소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본 연구의 참여자를 통해 인권운동 내부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청소년 활동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에 활동했던 의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는 청소년기에 활동했던 의제를 넘어 다양한 인권운동과 접합할 수 있도록 운동 내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특정 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관점을 누락시켜 운동의 분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통해 청소년 인권운동을 청소년이라는 당사자성에 국한하려는 통념과 관행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학령 인구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한 경쟁의 공간이 되어버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인권운동의 의제다. 청소년기에도,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그 현실로 인해 인권운동 참여에의 지속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모두 인

권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는 점, 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심지어 취업과 노동 시장이든 경쟁적 구조가 없어야 인권운동의 지속이나 의제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탈학교 청소년, 대학 미진학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인권운동의 지속과 제약 요인을 규명하고 개입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논문접수일: 2025. 11. 19, 논문심사일: 2025. 12. 08, 게재확정일: 2025. 12. 19)

## 참고문헌

- 강석남. 2023. “대학 언론은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소 :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장, 심하연 집행위원.” 『오늘의교육』 73: 196-220.
- 강석남. 2024a. “‘공간으로서의 대학’을 고민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 :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박민상, 임서연, 황민용, 권세연.” 『오늘의교육』 81: 235-264.
- 강석남. 2024b. “‘대학의 공공성’을 매개로 캠퍼스 바깥과 관계 맺기 :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김연우 위원장.” 『오늘의교육』 79: 263-287.
- 권영우. 2020.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기업인가 취업학원인가?” 『철학연구』 153: 1-39.
- 공 현. 2018. “촛불 이후의 과제로서의 청소년 참정권.” 『오늘의교육』 42: 220-231.
- 공 현. 2022.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한국의 튼베리” 소리는 그만.” 『오늘의교육』 66: 94-107.
- 구해근. 2002.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신광영 옮김. 서울: 창작과비평사.
- 김미현. 2020. “총여학생회 폐지 과정을 통해 본 대학 내 주체들의 분열과 경합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이상준. 2023. “한국 청년 기후운동의 특징과 한계 :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와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학생기후행동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2): 228-253.
- 김영선. 2022.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현상과인식』 46(1): 77-94.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1: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윤송. 2020. “선거권은 인권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43일의 거리농성과 청소년 참정권 운동 분투기.” 『오늘의 교육』 56: 129-146.
- 김현우. 2020. “기후위기 운동의 점화, 그러나 더 길고 단단한 운동을 시작할 때.” 『의료와사회』 10: 96-107.
- 난다·공현·피아. 2021. “지속가능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위한 전·현 활동가

- 연구: 계속하는 마음, 그만하는 마음.” 서울시 NPO 지원센터.
- 남궁연·김현주. 2021.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 정의와 여성혐오를 초래하는 또래의 역할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1-21.
- 남미자. 2019. “지금 여기,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의 의의.” 『교육비평』 43: 39-62.
- 남미자·김자영·이희진·배정현. 2022. “중고등학생의 페미니즘 백래시 (Backlash) 실태와 대응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연구원.
- 남미자·이희진·김자영·배정현. 2023. “학교 안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 영향 요인: 남성성 규범, 능력주의 및 학교 성평등 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33(2): 87-128.
- 민서연. 2023. “나는 어떻게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게 되었나.” 『여성우리』 70: 34-36.
- 서정훈. 2018.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활동경험 연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수 수. 2015. “청소년인권운동과 여성주의, 그 “그렇고 그런 사이”에 관하여.” 『여/성이론』 33: 227-236.
- 오카 마리. 2016.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옮김. 서울: 현암사.
- 유아름. 2025. “퀴어 청소년이 만드는 역동: 대안학교에서 경험한 억압과 당사자 실천.”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미. 2022. “청년 여성들의 성평등 실천, 그 가능성과 한계: 대학 미투 운동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4): 5-47.
- 이승엽·조행하. 2016. “남학교 청소년이 바라본 여성혐오” 『오늘의교육』 35: 52-61.
- 이준형. 2024. “대학 청소노동자 운동에 대한 학생 반대 행동의 양상과 특성: 저항 사건 분석을 통한 행위자, 행동양식, 배경조건 분석 (2003-2023).” 『민주주의와 인권』 24(2): 135-174.
- 이하영. 2021. “여성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진·성승연. 2024. “노동운동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연구.” 『시민과세계』

45: 319-351.

- 장경섭. 2006. “청소년기의 사회각축장화: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과 청소년.” 『가족과문화』 18(4): 93-125.
- 정 룩. 2023. “기후정의동맹을 통해 돌아본 한국 기후정의운동.” 『황해문화』 119: 273-288.
- 조지혜. 2023.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행위와 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 연구: 행위의 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훈. 2022.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이 기후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희정. 2021. “학교 공간의 혐오·차별 현상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36(4): 187-239.
- 혜 원. 2014. “아픈 사람들과, 아파하며, 아픈 것들을 배우기: 청소년운동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 『오늘의 교육』 18: 30-41.
- Hay, Colin. 2007. *Why we hate politics*. Malden, Mass: Polity Press.

<Abstract>

**The Activities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istence and Constraint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Activist of Youth Human  
Rights Movement**

Na, Seung Yeup\*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the continuity and constraints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activists who have emerged as political actors in the midst of changes in Korean society since the mid-2010s. The youth's involvement in the youth human rights movemen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controversy.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ageism as well as gender, region, and workability within the youth, adolescents expanded the scope of human rights movements and activities such as gender equality, environment, and labor.

However, regional movement due to college entrance, depoliticization within universities, weakening youth identity, and difficulty in living due to economic independence also made it difficult to continue their activities.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nstraints brought about by the transition to adulthood, given the reality that the experience of the youth human rights movement is a strong driving force for continuing activities

---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wards.

Keywords: youth, human rights movement, activist, transition to adulthood, stakeholder